

남편 잃고 6년간 쓴 일기 책으로 발간 신안 임자도 정효자 씨

“그리운 당신”... 70대 미망인 思夫曲

70대 미망인이 먼저 떠난 남편을 그리워 하며 6년간 쓴 일기를 책으로 엮었다. 신안 임자도에 살고 있는 정효자(여·71)씨는 6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일기에 기록했다. 둘째 아들 김병학(48)씨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베어있는 어머니의 일기를 ‘우리 다시 만날 날’(예목출판사)이란 제목의 책으로 만들었다. 시인이면서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책으로 출간하는 김씨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원성을 높이지 않았을 정도로 다정한 분”이었다며 “부모님이 노년에도 서로 사랑하고 많이 의지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리움이 컸다”라고 말했다.

남편에 대한 애절함이 베어있는 글은 보는 이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목련아! 너는 주인도 모르느냐? 주인도 없는데 이렇게 혼자 피었던 말이나? 주인이 너를 심어놓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꾸고 키웠는데 너는 주인이 보고 싶지도 않느냐? 너희는 때맞춰 찾아오는데 너를 가꾸준 주인은 언제 오겠느냐?”(2007년 3월28일)

“나는 길가에 떨어진 한 송이 꽃처럼 밟



히고 일그러진 세월 속에서도 참고 살았는데, 결실도 못 보고 고생만 하다가 먼저 멀리 떠나버린 당신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네.”(2012년 4월8일)

470여 페이지 두꺼운 책장 곳곳에는 4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정효자씨는 남편이 먼저 떠난 순간을 떠올리며 아직도 가슴이 아리다고 했다.

“남편은 마을사람 모두 존경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건강했

는데 갑자기 웨장암 맡기 관정을 받았어요. 평생을 함께 한 남편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을 기록하려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2008년 2월 남편은 떠났지만 그녀는 지금도 일기를 쓰고 있다.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삶의 고단함에 대한 흔적, 그때마다 떠오르는 남편과의 아련한 추억을 담백하게 담고 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다.

“요란한 바람소리 들으며 새벽 교회에 나가는 길, 하늘에 별을 보고 기도한다.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당신은 먼저 가셨지만 항상 당신께 감사하고 있어요.”(2012년 12월18일 화요일)

이와 함께 포도시(겨우), 우새스럽다(참피하다), 빠치다(고되다) 등 설지방 사람들이 쓰는 구수한 사투리도 볼 수 있다.

정효자씨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책을 출판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다”면서도 “용기를 내서 책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자녀들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감회를 밝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오스트리아 금성 훈장 수상 광주출신 박종범 한인연합회장

“고향 잊지 않으려 회사 이름도 영산”

박종범(56)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이 오스트리아 연방정부로부터 금성 훈장(금장)을 받았다.

박 회장은 한인협회장으로 한국과의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스트리아 외교부에서 현지시간으로 3일 훈장을 받았다. 그동안 오스트리아정부에서 외국인이 은장 훈장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금장 훈장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는 외국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다. 이날은 키를 오스트리아 외교부 차관, 조현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 한인 원로, 한인단체 관계자, 가족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오스트리아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과분한 상을 받아 어깨가 무겁지만 앞으로 양국이 더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광주에서 태어나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박 회장은 1996년 기자생활 오스트리아 법인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 말 찾아온 외환위기로 현지에 정착했다.

직원 1명과 1억 원에서 출발해 영산그룹



을 세웠다. 그는 고국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항상 고국과 고향 광주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영산그룹의 ‘영산’이 영산강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광주는 제가 태어난 곳으로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잊지 않기 위해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등 9개국에 13개 법인을 둔 영산그룹은 완성차, 타이어와 휠 등 자동차 부품, 산업용 장갑, 석유 화학 제품, 보일러 등 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수입해 판매한다. 엔지니어링, 신재생에너지 기업, 자동차 부품·조립공장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유럽 최대 규모의 한상기업인 일근 박 회장은 오스트리아 한인연합회장을 맡아 한인들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인문화회관 건립을 주도했다.

현재 유럽 한인연합회장으로도 활동하는 그는 오스트리아-코리안 소사이어티 부회장, 오스트리아-코리안 필하모니 부회장 등을 맡아 양국 간 친선과 문화 교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한-오스트리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동포 50년사’를 발간하는 데도 앞장섰다.

박 회장은 “유럽 총연합회 회장으로서 고국을 떠나 자라는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간직할 채 자라기를 바란다”며 “한글 글짓기대회, 한글 웬비대회를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범 회장은 “광주에서 10월에 세계 한상대회가 열리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 22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광주가 더욱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연합뉴스

재광 나주향우회, 임시이사회



재광 나주향우회(회장 나덕필)는 지난 3일 광주히딩크호텔에서 역대 회장과 이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와 제5회 이카데미를 개최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해남서 양계장 운영 박광용씨 쌀 100포 기증



해남군 황산면 송호리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박광용(64)씨가 최근 해남군에 사랑의 쌀 20kg 짜리 100포를 기증했다. 박씨는 지난해에도 쌀 100포를 전달한 바 있다.

<해남군 제공>

15년전 갇돈사기범 사기금 반환 해결

광주지검 문해경 실무관

투병중인 사기사건 당사자(여·68)의 부탁을 받고 15년 전 피해자를 찾아준 광주지검 민원실의 문해경(여·41) 실무관. 문 실무관은 지난달 19일 당사자의 오빠가 찾아와 “동생이 병상에서 과거를 뒤우치며 피해자에게 꼭 당시 피해금액을 되돌려주고 싶어한다”는 민원을 건네받고 고민에 빠졌다. 이미 6년 전 공소시효가 끝나 기록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전산자료에 남아 있는 이름을 근거로 수소문한 끝에 우선 피해자 1명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민원사무처리 법령에서는 고소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전화보다는 편지로 이 당사자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썼는데, 그것이 피해자에게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문 실무관의 편지 덕분에 사건 당사자는 15년 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당시 피해금액 200여만



원을 갚을 수 있었다. 그녀가 민원실 근무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근무한 지 4개월 만에 문 실무관은 26명에게 그 링크드(민원인이 응대할 공무원이 친절했다며 칭찬한 카드)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말 농촌에서 살려고 땅을 사려다 사기를 당한 노부부가 민원실에 찾아오셨는데, 한참을 설명드리니 조용히 나가셔서 캔 커피를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지금까지 가장 맛있는 커피였습시다.” 하지만 그녀도 힘든 적이 많다. 3명의 직원이 매일 평균 120명에 달하는 민원인을 상대해야하고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무조건 우기거나 행패까지 부리는 ‘진상’ 민원인을 만나면 그 어려움은 배가 된다.

문 실무관은 “민원실 직원들도 근무를 끝내고 나가면 보통의 시민이고 이웃이라고 생각해주

시면 고맙겠다”고 밝게 웃었다. 한편 민원을 낸 사기사건 당사자의 오빠는 몸이 아픈 동생이 사죄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며 광주지검 김현용 검사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에너지 절약 빌딩부문 '장려상'



(재)광주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원장 김권필)가 에너지 절약에 힘써 광주광역시 주관 2012 광주그린엑션 운영 평가 빌딩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광주그린엑션사업은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주요기관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대학 12곳, 기업체 23곳, 공공기관 및 청사 등 9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양세열기자 hot@

배우 임창정, 결혼 7년만에 이혼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 프로골퍼 출신 김도 씨 부부가 결혼 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임창정의 소속사 관계자는 3일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변호사가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성격 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이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어촌공 박재순 시장 오늘 순천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시장이 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순천대학교가 공동 제작한 '가야각배 기념 조형물 제작식'에 참석하기 위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찾는다.

후두루미를 형상화한 기념조형물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순천대학교의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제작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안수협 주영문조합장 동탑산업훈장



신안군수산업협동조합 주영문 조합장이 전국 1등급 조합으로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수협 중앙회로부터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지난 2009년 4월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주영문 조합장은 14개 읍면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61년 광주일보와 사연·자료 찾습니다

호남 최대 부수를 발행하는 지역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올해 창사 61주년(4월 20일)으로 '회갑'을 맞습니다. 이에 광주일보는 독자 여러분과 본보의 소중한 사연, 소

장중인 진귀한 자료를 찾습니다. 지난 1952년 창사 이후 본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를 포함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주일보에 실린 절절한 사연의 주인공은 물론, 그 분들을 알고 계시면 연락하십시오. 또 본보와 관련된 소중한 자료도 찾습니다. 채택된

사연과 자료는 지면에 소개하며,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우)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 무등빌딩 14층 광주일보 사회부
- ◇전화 (062)220-0616 FAX (062)222-4918 휴대전화 010-3155-1111
- ◇이메일 unipark@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84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 ▲이종열(초당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임희숙(선경우 요양원장)씨 장남 경운군 고영태·한인숙씨 장녀 은정양=6일(토) 오전 11시 5타워 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이상진(이화폴리텍 대표이사)·김성애씨 차남 태훈군 이병인·장연희씨 장녀 윤화양=6일(토) 오후 1시 프라도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
- ▲이정애씨 장남 박현규(기자자동차)군 이용욱·김재순씨 장녀 기정양=6일(토) 오후 1시 40분 P&J웨딩홀 2층 주얼리홀.
- ▲박민수·김홍량씨 장남 상호(한화건설)군 강희선(광주동성고 교장)·김순아씨 장녀 기연(김&장 법률사무소)양=6일(토) 오후 1시 광주신안교회 예배당.
- ▲김재윤·장영애씨 아들 레옥군 김인표(곡성군청)·변중희씨 장녀 구슬(일곡병원)양=7일(일) 오후 1시 5타워웨딩컨벤션 3층 메리골드홀.

- ▲정중호·양서례씨 차남 정만근 백정환(전 광주일보 디자인부장)·김용희씨 장녀 수지양=13일(토) 오후 1시 꿈의공간 웨딩홀.
- ▲김형식·박순희씨 장남 도현군 임석원(광주일보 발송부)·안점례씨 장녀 지애양=20일(토) 낮 12시 30분 일산 더 테라스 11층, 피로연=6일(토) 오후 6시 상무힐컨벤션 3층 다이아몬드홀.

동창동문회

- ▲목포고 제5회 동창회(회장 조재욱) 월례회=5일(금) 오후 6시 30분 금강산식당 062-224-0808.
- ▲광주상고 12회 동창회 정기총회=7일(일) 오후 6시 30분 별난뷔페 2층(충장로 2가) 062-224-1711.

중친회

- ▲재광 경주김씨중친회=5일(금) 오후 5시 30분 맛집 한겨레(금남로

- 카토릭센터 뒤) 김재찬 010-6455-6296.
- ▲진주강씨 광주전남총회 자문회 개최=5일(금) 오후 5시 중회 회관 3층 062-228-3368.
- ▲진주강씨 광산구 총회 제47차 정기총회 개최=6일(토) 오전 11시 광산시민연대 대강당 062-944-2383.
- ▲김해김씨 석성공파 호산문중 정기총회(회장 김정태)=7일(일) 오전 11시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범소재 061-473-2033.
- ▲전주리씨 대중중약원 광주-전남 지원 이화회 (회장 이승봉) 월례회의=9일(화) 오후 6시 062-225-5636, 5631.
- ▲한국 범최씨 대중연합회(회장 최남용) 4월 월례회=11일(목) 오후 6시 진도횃집(금남로 5가) 062-236-3220.
- ▲나주임씨 광주정년회장 이·취임식(취임회장 임홍채)=11일(목) 오후 7시 하남극관광호빌 6층 연회석 010-3606-5000.

향우회

- ▲재광 보성군향우회(회장 박오주) 춘계총회(내고향 탐방) 개최=6일(토) 오전 8시 문화전당역 전일빌딩 뒷편 017-365-7865.
- ▲재광 곡성 향우회(회장 김재정)=7일(일) 오후 7시 남도에술영양물술밥(두암동) 062-266-5566.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제주특별자치도민회 제3차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16일(화) 오후 7시 30분 엘리시아 데이지홀(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10-3642-8833.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조애옥)=북구 무등로 180번 길 5호(신안동 133-1 번지 행남자거

- 2층) 062-523-6028.
- ▲광주유수(동무)협회 정기이사회(회장 김상덕)=8일(월) 오후 7시 미송식당 062-223-6322.

모집

- ▲각화문화의집 프로그램 회원=마이올린교실(매주 토요일 오후 1시~오후 4시 30분), 하모니카(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오후 3시), 노래교실(매주 월요일 오후 3시~오후 4시 30분) 등 수시 회원 모집, 광주 북구 각화동 480-41번지 062-265-9337.
- ▲주간재활프로그램회원=만성정신질환을 위한 정신재활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주 5일)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062-233-0468.
- ▲숨마체협 및 개인레슨=광주 광산구 오운동 465 광산승마랜드 010-8615-6500.
- ▲사람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장애여성 및 취약

계층 여성 교육생=교육대상은 여성 장애인 및 취약계층 여성(선착순 15명), 교육기간은 4월~9월(주1회·오후 2시·교육비 무료), 장소는 전남대 동창회관. (사)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광주광역시협회 062-251-7482, 019-622-1721.

부음

▲나관주씨 별세 방제(나사라피부비노기과원장)·병식·보숙·유정·현자씨 부친상=발인 5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양희인씨 별세 일승(현안산업)·의승(아리랑상사)·부승(기업은행)·효승·정승(사과나무치과)씨 부친상 방제·김성식(조선이공대학교)씨 부친상=발인 5일(금)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6분향소 062-231-8906.

謹 尙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이순 (여/90세) 子/子婦: 성은규, 봉규,석이숙, 영재/김을수, 인 女/婿: 성은호, 명심,정연희	故 기이순 (여/87세) 子/子婦: 김동욱/김혜경, 동호/전대영, 동일/이영화 孫은/조규자
故 김금애 (여/80세) 子/子婦: 서용기/윤현희,정기/정애영,상기/허현정 女/婿: 서한지/정영근,차남/박성철,상남/김준수,연순/신우철	故 고석천 (남/62세) 子/子婦: 고두환/박금, 최무민 未成人: 조선자

•호실:2018호 •발인:4월 5일
 •장지:고향리선영 •연락처:227-4381
 •호실:402호 •발인:4월 5일
 •장지:대전 현충원 •연락처:227-4314

•호실:301호 •발인:4월 6일
 •장지:화순 중앙 선영 •연락처:227-4382

•호실:102호 •발인:4월 5일
 •장지:영락공원 •연락처:227-4386

孝 金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